

가장 좋은 에이즈 예방교육은 콘돔을 사용케 하자

유은주 본회 교육연구과장

에이즈의 피해자이자 중간매개자가 될 수도 있는 성매매 여성은 그 지위적 한계로 인하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사용을 관철시키기는 힘들다. 성매매 현장에서 에이즈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구매자, 특히 업주들의 콘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에이즈 감염의 매개자로서만 바라 볼 뿐, 이들이 상시적으로 에이즈 감염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성매매 여성들을 통해 에이즈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상상'에만 주력할 뿐, 이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구매한 남성들 때문에 에이즈나 성병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무관심하다. 그리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진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의 반대편에서 자라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는 오히려 이 지역을 찾는 성구매자들을 에이즈 불감증으로 만드는 일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일부 남성들은 콘돔을 쓰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기 검사를 하는 성매매 여성은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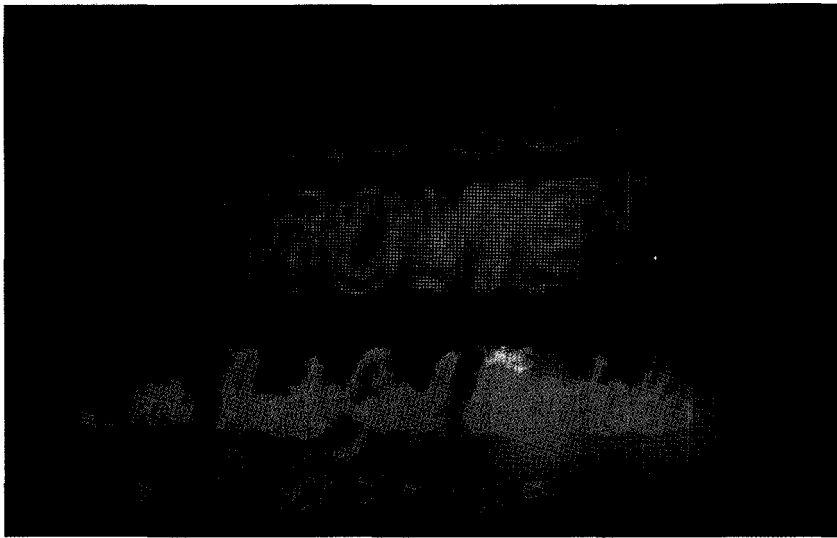
성매매 여성들은 항상 에이즈 감염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콘돔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콘돔 사용을 끝까지 관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것은 성매매 현장에서 콘돔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성매매 여성보다는 성구매자인 남성에게 있기 때문

이다.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가정할 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성구매 남성들 중에 감염인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 생각처럼 나는 검사를 받아서 안전하지만,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콘돔을 사용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콘돔 거부자를 거절할 수 있도록

분명 성매매 여성들에게 에이즈 예방 교육 자료를 나눠주고 콘돔을 건네면서 "항상 콘돔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성매매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성매매 밀집지역(일명, 사창가)의 특수성 탓에 이런 방식의 민간단체 예방 활동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에이즈 예방 실천, 즉 콘돔사용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성구매자가 콘돔 사용을 거부하면 여성들 손에 쥐어진 콘돔은 무용지물 일 뿐이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에이즈에 취약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성매매를 통한 에이즈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매매 여



들에게만 콘돔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정규교육 과정에 에이즈 교육 포함 시켜야

어쩌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방법들은, 실은 성매매 밀집지역(사창가)에서만 가능한 방법일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들면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발달해가는 성산업의 현 주소를 반영하

성에 대한 감시체계의 강화보다는, 성 구매자들이 콘돔 사용을 꺼리는 현실을 변화시키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여성들을 위한 검진 체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강제적이거나 여성을 통한 에이즈 전파 역제가 그 목표여서는 곤란하다.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스스로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성병이나 에이즈뿐만 아니라, 임신, 약물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업주의 협조를 유도해서 콘돔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성구매자들이 콘돔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콘돔을 사용을 거부하는 성 구매자를 여성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업주들이 지원 하는 방법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비록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일 수 있지만, 이런 협조가 가능할 경우 여성

는 에이즈 예방 사업이라면, 잠재적인 성구매자들, 더 나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좀 더 안전한 성(safer sex)에 대해 교육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과과정을 개편해 에이즈 예방 교육을 정규교육에 포함시키거나, 위험한 성에 노출된 경우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보는 운동을 전개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성을 실천하는 의식 변화 운동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 성을 사는 사람, 성을 파는(팔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장기적인 비전이 수립되기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심이나,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무척 낮은 듯하다. 아직까지 감염인의 수가 적고 에이즈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2000년 UNAIDS에서 진행한 인도 캘커타의 성매매 지역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의 교훈을 떠올려 본다.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권 · 인권에 기반 한 에이즈 예방 운동은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본 회에서는 ‘막달레나의 집’과 함께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거나 탈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 에이즈와 안전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을 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가 일어나는 현장에 에이즈 예방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품을 들여 놓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스터나 달력, 작은 액세서리 등에 담긴 콘돔 이미지들이, 비록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콘돔을 쓰자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여성을 대신해서 성구매자들에게 콘돔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